

# 최근 IMF 수정 경제전망(10.13일)의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시사점

####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·글로벌연구실 2020. 10. 1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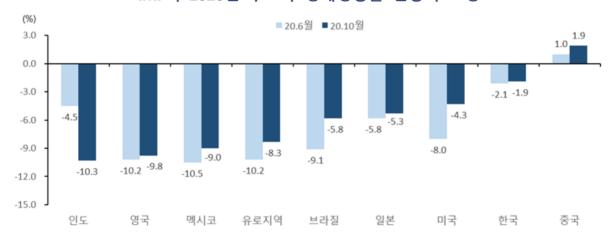
- 10.13일 IMF는 6월 전망시 예상보다 개선된 대다수 국가의 2분기 GDP 실적을 반영하여 2020년 글로벌(한국)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-4.9%(-2.1%, 6월 발표)에서 -4.4%(-1.9%)로 상향 조정
  - 우리은행 진출국(20개) 중 IMF 전망치 조정폭(6월 대비 10월 전망)이 공개된 12 개 국가를 보면, 9개국(예: 미국, 중국, 브라질)이 상향조정되고 3개국(인도네시 아, 인도, 필리핀)이 하향 조정
    - \* 우리은행 해외점포(12개국) 자산규모로 가중평균한 2020년 진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월 기준 -4.3%에서 10월 기준 -3.2%로 1.1%p 상향 조정
- 🔷 2021년 글로벌(한국) 전망치는 5.4%(3.0%)에서 5.2%(2.9%)로 소폭 하향 조정
  - 2020-21년 전망치 총 조정폭이 0.3%p(2020년 0.5%p, 2021년 -0.2%p) 높아진 것은 2분기 GDP가 예상보다 개선되었기 때문이며, 4분기 이후 성장경로는 지난 6월 전망궤적과 큰 차이가 없음
- IMF는 경제전망의 하방위험(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봉쇄조치 재도입)이 상방위험(치료제·백신 조기 개발·상용화로 경제활동 정상화 가속)보다 큰 것으로 평가
-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(특히 신흥국) 리스크 관리에 유념하는 한편, 중장기 글로 벌 투자기회도 적극 모색할 필요
  - 2021~25년 중 우리금융그룹 진출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연평균 1.3%p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과 국가에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재배분하는 등 중장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

작성자: 권영선 실장(02-2173-0569), 박수빈 조사원(02-2173-0556)

#### I. 최근 IMF 경제전망 조정 내용

- 10.13일 IMF는 6월 전망시 예상보다 개선된 대다수 국가의 2분기 GDP 실적을 반영하여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-4.9%(6월 발표)에서 -4.4%로 0.5%p 상향 조정
  -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봉쇄조치를 강화한 일부 신흥국(예: 인도, 인도네시아, 필리핀)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(예: 미국, 유럽, 일본, 한국, 중국)의 전망치를 경제활동 정상화(특히 2분기)와 거시정책효과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
    - \* 2020년 전망치 상향 조정: 미국(-8.0% → -4.3%), 유로지역(-10.2% → -8.3%), 일본(-5.8% → -5.3%), 중국(1.0% → 1.9%), 한국(-2.1% → -1.9%)
    - \* 2020년 전망치 하향 조정: 인도네시아(-0.3% → -1.5%), 인도(-4.5% → -10.3%), 필리핀(-3.6% → -8.3%)

#### IMF의 2020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



자료: IMF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- 2021년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5.4%(6월 발표)에서 5.2%로 소폭(-0.2%p) 하향 조정
  -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올해 성장률을 큰 폭 하향 조정한 국가(예: 인도, 필리 핀)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, 반대로 올해 상향 조정한 국가 (예: 미국, 유럽, 일본, 한국)는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
    - 중국, 인도네시아는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
  - 2020-21년 전망치의 총 조정폭이 0.3%p(2020년 0.5%p, 2021년 -0.2%p) 높아진 것은 2분기 GDP가 예상보다 개선되었기 때문이며, 4분기 이후 성장

경로는 지난 6월 전망궤적과 큰 차이가 없음

- IMF는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관리되고 백 신 상용화는 2022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제(기본 시나리오)하면서도, 향후 경 제전망의 하방 위험이 상방 위험보다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
  - 하방 시나리오(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봉쇄조치 재도입)하에서 2021년 글로벌 GDP 성장률은 2.2%(기본 시나리오 대비 -3.0%p)로 추정
    - 신흥국(정책여력 제한, 환율 불안, 의료보건시스템 열위)이 선진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평가
  - 상방 시나리오(치료제·백신 조기 개발·상용화로 경제활동 정상화 가속)하에서 2021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5.7%(기본 시나리오 대비 +0.5%p)로 추정
    - 신흥국에 대한 경기개선 효과가 선진국보다 클 것으로 평가
- 글로벌 경제회복이 공고해지도록 ①효과적 방역을 통한 경제충격 최소화, ②확 장적 재정·완화적 통화·포용적 금융정책 지속, ③글로벌 정책공조(예: 저소득국 가 백신 보급, 신흥국 부채 상환 유예) 강화를 권고
  -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·기업·가계부채가 급증하였으므로 저금리 지속, 상환 유예 등을 통해 부도위험을 줄이고 신용경색을 방지하는 것이 긴요
-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2021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수준을 가능하기 위해 2025년 전망치를 통계부록에 포함
  - 글로벌 성장률은 2021년 5.2%에서 2025년 3.5%(잠재수준)로 하향 수렴 \* 주요국별 성장률 변화: 미국(2021년 3.1% → 2025년 1.8%), 유로지역(5.2% → 1.4%), 중국(8.2% → 5.5%), 한국(2.9% → 2.4%), 인도(8.8% → 7.2%)

### II. 우리금융그룹 글로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바라본 IMF 경제전망

- 1. 지난 6월 예상보다 우리은행 진출국의 역성장폭이 축소
  - 우리은행 진출국(20개) 중 IMF 전망치 조정폭(6월 전망 대비 10월 전망)이 공개된 12개 국가를 보면, 9개국(예: 미국, 중국, 브라질)의 성장률이 상향조 정되고 3개국(인도네시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)이 하향 조정
    - 우리은행 해외점포(12개국) 자산규모로 가중평균한 2020년 진출국 성장률 전망치는 6월 기준 -4.3%에서 10월 기준 -3.2%로 1.1%p 상향 조정

#### 2. 기초경제여건에 따라 진출국별 차별화가 심화

- 우리은행 진출국(20개) 중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여력이 큰 국가는 2020년 플러스 성장을 예상(중국 1.9%, 베트남 1.6%, 방글라데시 3.8%, 미얀마 2.0%)
- 반면, 서비스업(예: 관광) 비중이 높고 방역·보건·의료시스템이 열악하며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국가는 큰 폭의 역성장을 전망(예: 인도 -10.3%, 영국 -9.8%, 멕시코 -9.0%, 필리핀 -8.3%)

#### 3. 중장기적으로 우리은행 진출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

- 우리은행 진출국의 GDP를 구매력(Purchasing-Power-Parity) 기준으로 가 중평균한 2020년 경제성장률이 -3.3%로 한국(-1.9%)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
- 하지만, 중장기 시계에서 보면 진출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1.3%p (2021~25년 연평균)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과거(2011~19년 연평균 0.8%p) 보다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
  - \* 잠재성장률로 대용할 수 있는 2025년 GDP 성장률은 진출국 3.7%, 한국 2.4%

#### 우리은행 진출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(2020년 이후는 IMF 전망치)





우리은행 진출국가별 GDP 성장률 전망치 조정 내역

	구분 GDP 성장률										
	단위	%			%p	%		%p	%		
	연도	`19	`20		전망치	`21		전망치	`25		
			(6월)	(10월)	조정	(6월)	(10월)	조정	(10월)		
	글로벌	2.8	-4.9	-4.4	0.5	5.4	5.2	-0.2	3,5		
	한국	2.0	-2.1	-1.9	0.2	3.0	2.9	-0.1	2.4		
우리은행 진출국	미국	2.2	-8.0	-4.3	3.7	4.5	3,1	-1.4	1.8		
	중국	6.1	1.0	1.9	0.9	8.2	8.2	0.0	5.5		
	홍콩	-1.2	N/A	-7.5	N/A	N/A	3.7	N/A	2.9		
	인도네시아	5.0	-0.3	-1.5	-1.2	6.1	6.1	0.0	5.1		
	영국	1.5	-10.2	-9.8	0.4	6.3	5.9	-0.4	1.6		
	싱가포르	0.7	N/A	-6.0	N/A	N/A	5.0	N/A	2.5		
	베트남	7.0	N/A	1.6	N/A	N/A	6.7	N/A	6.6		
	일본	0.7	-5.8	-5,3	0.5	2.4	2.3	-0.1	0.6		
	UAE	1.7	N/A	-6.6	N/A	N/A	1,3	N/A	2.6		
	바레인	1.8	N/A	-4.9	N/A	N/A	2.3	N/A	3,3		
	인도	4.2	-4.5	-10,3	-5.8	6.0	8.8	2.8	7.2		
	호주	1.8	-4.5	-4.2	0.3	4.0	3.0	-1.0	2.5		
	캄보디아	7.0	N/A	-2.8	N/A	N/A	6.8	N/A	6.9		
	방글라데시	8.2	N/A	3,8	N/A	N/A	4.4	N/A	7.3		
	러시아	1.3	-6.6	-4.1	2.5	4.1	2.8	-1.3	1.8		
	필리핀	6.0	-3.6	-8,3	-4.7	6.8	7.4	0.6	6.5		
	독일	0.6	-7.8	-6.0	1.8	5.4	4.2	-1.2	1.2		
	브라질	1.1	-9.1	-5.8	3.3	3.6	2.8	-0.8	2.2		
	미얀마	6.5	N/A	2.0	N/A	N/A	5.7	N/A	6.5		
	멕시코	-0.3	-10.5	-9.0	1.5	3.3	3.5	0.2	2.1		

자료: IMF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#### III. 시사점

- IMF는 2020-21년 글로벌 경제가 지난 6월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 서도, 향후 경제전망의 하방위험이 상방위험보다 큰 것으로 평가
-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(특히 신흥국) 리스크 관리에 유념하는 한편, 중장기 글 로벌 투자기회도 적극 모색할 필요
  - 2021~25년 중 우리금융그룹 진출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연평균 1.3%p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중장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
    - 예를 들면 진출국의 단기적인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정치·경제·산업구조, 금융 제도, 의료·보건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·감안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과 국가에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재배분

### 붙임1

## 우리은행 진출국 2020-21년 성장·물가·경상수지 전망

	구분	구분 GDP 성장률			CPI 상승률			경상수지		
	단위	%				%		GDP 대비, %		
	연도	`19	`20	`21	`19	`20	`21	`19	`20	`21
	글로벌	2.8	-4.4	5.2	3.5	3.2	3.4	N/A	N/A	N/A
	한국	2.0	-1.9	2.9	0.4	0.5	0.9	3.6	3.3	3.4
우리은행 진출국	미국	2.2	-4.3	3.1	1.8	1.5	2.8	-2.2	-2.1	-2.1
	중국	6.1	1.9	8.2	2.9	2.9	2.7	1.0	1.3	0.7
	홍콩	-1.2	-7.5	3.7	2.9	0.3	2.4	6.2	4.4	4.7
	인도네시아	5.0	-1.5	6.1	2.8	2.1	1.6	-2.7	-1.3	-2.4
	영국	1.5	-9.8	5.9	1.8	0.8	1.2	-4.0	-2.0	-3.8
	싱가포르	0.7	-6.0	5.0	0.6	-0.4	0.3	17.0	15.0	14.5
	베트남	7.0	1.6	6.7	2.8	3.8	4.0	3.4	1.2	1.7
	일본	0.7	-5.3	2.3	0.5	-0.1	0.3	3.6	2.9	3.2
	UAE	1.7	-6.6	1.3	-1.9	-1.5	1.5	8.4	3.6	7.5
	바레인	1.8	-4.9	2.3	1.0	0.0	2.8	-2.1	-8.0	-5.7
	인도	4.2	-10.3	8.8	4.8	4.9	3.7	-0.9	0.3	-0.9
	호주	1.8	-4.2	3.0	1.6	0.7	1.3	0.6	1.8	-0.1
	캄보디아	7.0	-2.8	6.8	2.0	2.5	2.9	-15.8	-25.4	-16.3
	방글라데시	8.2	3.8	4.4	5.5	5.6	5.9	-1.7	-1.5	-2.8
	러시아	1.3	-4.1	2.8	4.5	3.2	3.2	3.8	1.2	1.8
	필리핀	6.0	-8.3	7.4	2.5	2.4	3.0	-0.1	1.6	-1.5
	독일	0.6	-6.0	4.2	1.3	0.5	1.1	7.1	5.8	6.8
	브라질	1.1	-5.8	2.8	3.7	2.7	2.9	-2.8	0.3	0.0
	미얀마	6.5	2.0	5.7	8.6	6.1	6.2	-2.6	-3.5	-4.4
	멕시코	-0.3	-9.0	3.5	3.6	3.4	3.3	-0.3	1.2	-0.1

주: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실질 GDP 성장률, CPI 상승률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

자료: IMF, 우리금융경영연구소